

파업사태 일단락 '광주시립예술단' 향후 과제는

# “운영방식 등 뼈 깎는 개혁 뒤따라야”

정기공연 취소라는 최악의 선택을 남긴 광주시립예술단 파업사태가 일단락됐다. 광주시, 시립예술단 양측은 노조의 파업선언 하루 만인 지난 31일 단체협약에 잠정합의했다.

양측이 사태 장기화는 막자는 데 공감한 데 따른 것이다. 노조는 앞서 협상이 결렬되자 '정기공연 취소'라는 초강수를 뒀고 시도 작장폐쇄와 문화예술회관 공장 교체로 맞섰다.

협상 잠정 타결에는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불모로 극한대치 했다는 안팎의 비

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났다. 예술감독 재위촉을 위한 자문위원 선정시 5명 이하일 경우는 1명, 5명을 넘어설 경우는 노조가 2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단원평가와 관련, 노조는 그동안 '평가에 대한 부분을 합의하여 시행한다'에서 '협의'로 양보했고, 단원평가를 위한 전

임위원도 자문위원 선정시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예술단원 해촉 제한 부문에 있어서는 징계위원 중 1명을 조합에서 추천하는

이 든다"고 말했다.

◇**뼈아픈 개혁**해야=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혁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문화예술계 전반의 여론이다.

광주시의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2~3년 전부터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번 사태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부족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가장 큰 문제는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한 중장기적 발전 과제와 비전이 없다는 점이다. 시립예술단이 양적으로는 커졌지만 질적인 성장이 뒤따라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해마다 수많은 형세를 펴보고도 시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사태를 타산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지역 문화계의 한 인사는 "이를 위해서는 광주시, 시민사회단체, 예술단체, 노조, 전문가 등이 참여해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동안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된 ▲문화회관 인력 예술분야 전문가 영입 ▲엄격한 단원들의 오디션과 평가제도 마련 등의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이기훈 지역문화교류재단 사무처장은 "개혁을 위해 문화회관 내에 TF팀을 만들고 제대로 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협의기구를 통해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면 시립예술단 운영 기준과 조례에 반영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지난 30일 오후 광주문화재단에서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원 11명의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사진은 동화작가 김성범씨의 축하공연 모습.

## 지역문인 잇따라 작품집 출간 '활기'

### 작가 11명 동시 '출판기념회'

지역 문단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30일 오후 광주문화재단에서 지역 문인들의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사)광주전남작가회의(이하 작가회의) 소속 회원 11명이 한자리에 모여 출판기념회를 가졌던 것.

문학의 위기가 회자되는 현실에서, 지역에서 활동 중인 11명의 문인들이 동시에 출판기념회를 가진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새로운 집행부 출범을 계기로 작년 말에서 올 초까지 발행한 작품집을 대상으로 회원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시집에 고선주 '밤알의 힘' 박두규 '두답나

루 숲, 그대' 선안영 '목이 긴 꽃병' 이숙현 '영산전이 생생하다' 조성국 '등근 진동' 황형철 '바람이 겨울' 등 5명의 작품집과, 소설집에 나경이 '미완의 퍼즐' 정광철 '수양산 그늘' 등 2명의 작품집이, 평론집에 이승희 '아탈린의 방', 산문집으로 설정환 '파리, 날다' 홍광석 '아내의 트랙' 등 모두 11명의 작품집이 상재됐다.

조진태 작가회의 회장은 "작가회의 활성화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골방에 갇혀 글을 쓰는 것이 작가라는 인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며 출판기념회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본질적인 역할은 문학이 견인해야 하며 오늘의 행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단초가 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명환 상임고문은 "작품집 발간은 암탉이 알을 낳는 것처럼 저마다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의 집단적인 힘이 큰 격려가 될 것"이라며 격려했다.

이어 동화작가 김성범씨가 창작요율 '섬진강도깨비마을'로 축하 공연을 했고 11명 회원들이 순차적으로 짤막한 인사말을 했다.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나경이씨는 소감에서 "20년간 소설을 썼는데 이번에 정리하는 생각으로 소설집을 발간하게 됐다. 앞으로 쉬지 않고 뚝뚝씩 정진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예술 체험하고 설 선물 사세요

### 대인시장 작가들 5일부터 '예술장터 방...' 운영

"날이면 날마다 서는 장이 아닙니다." 대인시장 작가들이 설을 맞아 예술작품을 감상하고 구매할 수 있는 이색 예술장터를 마련한다.

2012 대인예술시장 프로젝트 느티나무숲은 5일 오후 6시부터 이달 말까지 시장 상주 작가들과 함께 대인시장 내 예술공장과 한평 갤러리 일대에서 '예술장터 방-장플랜이 선물가게'를 운영한다.

예술장터는 작품전시장, 아트숍, 대인예술시장 자료관, 체험 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행사에는 대인예술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 22명이 참여한다.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술체험활동도 결성여진다.

전시·판매 작품도 풍성하다. '목각인형' '드로잉 작품' '종이 등' '펜던트' '장식도자기' '친환경 예코가방' '리플라이트' '다기'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150여점을 한꺼번에 감상·구매 할 수 있다.

느티나무숲 임선이 총괄기획팀장은 "2012년 대인예술시장에 참여했던 예술가들의 작품과 다양한 면모를 다시 한 번 보여주기 위해 '예술장터 방'을 열게 됐다"며 "이



노어문작 '시승한쌍'

기간 동안 대인시장을 찾으면 예술체험과 더불어 설에 선물할 다양한 예술작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의 062-233-142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한·중 청소년 예술로 우정 쌓기

### 광주문화재단, 3일 교류행사

음악학교와 미술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 청소년 50여 명이 광주에서 음악회 및 작품 전시회를 갖는다.

광주문화재단은 광주관광컨벤션뷰로와 함께 3일 오후 2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한·중 청소년 문화예술교류행사를 개최한다.

광주시 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중국 낙양시, 린이시, 무한시 등 3개 도시의 음악·미술학교 소속 청소년 57명이 광주 학생들과 함께 교류음악회 및 작품 전시회를 진행한다.

낙양시 카시오(CASIO) 음악학교 학생들은 전자피아노 연주와 남성 독창, 린이시 린위사오위엔 음악학교 학생들은 네손 연탄 연주 등을 들려준다. 광주 명문음악학원 소속 학생 30여 명도 연주를 선보일 계획이다.

공연장 옆 대연실에서는 무한 미술학교 학생들이 시·서·화 쪽자 35점을 전시하고, 수채화·인물화 등 그림 그리기를 통한 교류 행사도 진행된다. 문의 062-670-7917.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 노조-광주시 4개 단협안 타결...임금 문제는 불씨

### 객관적 평가·전문가 영입 '중장기 로드맵' 필요

관 여론도 작용했다.

하지만 양측이 이견을 보인 단원들의 임금 문제 등은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 내부적으로는 풀어야 할 문제도 적잖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할 경우 제2~3의 사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쟁점과 합의내용**=광주시와 노조는 지난 31일 오전 광주시청 문화체육정책실에서 협상을 갖고 그동안 평행선을 달렸던 4가지 조항에 잠정합의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예술감독 재위촉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는 노조가 '재위촉시 단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

것으로 가닥을 잡았고 등·하계휴가는 조합이 요구했던 연 10일에서 5일로 조율했다.

그러나 파업과정에서 벗어난 공연 취소 사태는 시립예술단의 공적인 책무를 저버린 선택으로 남게됐다. 또 이번 사태는 양측의 양보와 소통이 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협이안 대부분이 노조가 지난 30일 교섭에서 한발 물러나 제안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노조 관계자는 "공연 취소는 노조와 시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그동안 서로가 소통이 부족했다는 생각



최악의 선택을 남긴 광주시립예술단의 파업사태와 관련, 광주시의 예술행정에 대한 개혁과 시립예술단원들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기차표/항공권/승선권 국제선 할인항공권 판매**

**(주)대원여행사**

062) 526-7000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www.daewontour.com

후원 : 남해고속

**흑산도상리봉 등반및 자유관광**

출발일	당일(찍수날 출발)
여행비	주중 88,000원 주말 98,000원
포함사항	광주·목포 왕복교통비/흑산도 왕복패속선 흑산도 중식 제공
불포함	흑산도 버스일주관광 선택 (15,000원)

**홍도 / 흑산도 특가 이벤트**

출발일	3월1일~2일(1박2일)
여행비	주중 158,000원
포함사항	광주·목포 왕복교통비/ 흑산도, 홍도 왕복패속선/ 숙박비 (5인이상 합숙)/ 식사비(4식)/ 홍도유람선/ 여행자보험
불포함	흑산도 버스일주관광 선택 (15,000원)

“경축”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 2013년 새로운 시작!

금수장 호텔 · 아리랑 하우스에서 함께 하십시오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16,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A코스 42,000원 / B코스 35,000원 / C코스 27,000원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드릴 것입니다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외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1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